

2022-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 에세이 참가 신청서

※ 휴먼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인적 사항					
소 속	법사회대학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학 번		비고	외국인, 편입생, 만학도, 장애학생 등 경우만 작성
이 름	윤**	연락처			

제 목	같이 있고, 가치 있는 학습				
교과목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담당 교수명	전성남 교수님	
구 분	전공				

제목: 같이 있고, 가치 있는 학습

행정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20211106

윤 슨

프로포절? 그게 뭔데? 그거 꼭 해야하는 거야? 딱 이 세 문장으로 난 이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프로포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내 진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난 전혀 알지 못했다. 사회복지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많이 한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며 방법의 합이다.’ 프로그램기획을 통해 조직의 실무자가 구체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기에 앞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과정을 배우며 전문가로 양성하게 된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예비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전성남 교수님은 교재와 ppt 자료를 활용해 강의를 통한 실습형식의 수업으로 진행하셨다. 우리는 과에 맞는 진로를 갖게 되면 누구나 ‘프로포절’ 이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프로포절은 예산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제대로 배웠을 때 큰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교수님께서 한 학기 과제를 자신의 프로포절을 작성하는 것으로 내준 후 한 학기동안 강의식 수업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강의 후 학생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게 시간을 내어주시면서 바로바로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통해 실습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강의식 수업만 했으면 어려워서 흥미를 잃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강의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과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바로 손을 들어 질문을 통해 빠르게 수정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 수업의 큰 장점이다. 또한 교수님께서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충분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한 숙지를 해주시고, 원하는 학생들 가운데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프로포절을 발표할 수 있게 하여, 발표학생 프로포절을 바로 피드백해주시며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주셨다.

이 수업은 프로포절을 만드는 과제가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였고, 중간과 기말고사는 객관

식과 단답형(서술형)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식이 출제되었고, 단답형(서술형)은 내가 만든 프로포절을 바탕으로 적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 난이도는 어려운 편이 아니었고, 과제를 열심히 했다면 단답형에서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교수님께서 번거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출한 과제와 시험답안지를 일일이 확인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과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셨다.

이런 시험 문제를 통해 시험을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프로포절을 작성하는데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는 채점해주신 시험답안지를 나눠주시면서 오답풀이를 해주셨고, 그 오답풀이를 통해 내가 무엇을 틀렸고, 왜 틀렸으며 정답이 무엇인지까지 알 수 있어 학습의 피드백이 되었다.

나의 학습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누어진다. 수업강의필기, 실습, 복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교재중심수업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을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최대한 모두 적으려고 집중했다. 나는 학습을 할 때 ‘이해’를 해야 그 과목을 오롯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적용을 중요시했다. 교수님께서 강의 후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나는 이때 좀 더 원활한 활동과 학습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노트북을 항상 챙기고 다녔다. 노트북 한글파일과 검색창을 동시에 켜서 자료를 찾으며 프로포절을 바로바로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수업 1질문’을 통하여 교수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통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렇게 수업을 들은 후에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과제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 따로 연락을 드리며 궁금증을 해결해갈 수 있었다. 나중에는 교수님께서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다”고 따로 말씀해주셨는데 이때, “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업시간에 최대한 집중하여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해보고 궁금한 점은 바로바로 물어보는 것을 통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체화시킬 수 있었다.

이 수업을 수강한 후 나는 성적을 떠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진로에 가까워져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값진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내 진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교수님께서 정말 솔직하고 실질적인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다. 그 조언들을 받으며 나는 이 수업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학습코칭을 함께 받으며 이 수업을 수강하였다. 학습코칭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나 완벽주의성향이 나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고, 집중을 잘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고치고 싶어 했는데 나는 이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수업을 통해 나의 잘못된 학습습관을 좋게 바꿀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시작하고, 진로나 학습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때는 교수님과의 피드백을 통해 불안감을 ‘나는 잘하고 있어’, ‘꾸준히 한다는 게 중요하지’ 등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일방향적인 수업에서 집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통해 내가 스스로 적용하고, 직접 경험이나 사례에 대입해보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지식을 전달만 해주는 교수님이 아니라 내 진로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좋은 멘토를 만난 것 같았다. 항상 진로와 취업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아는 정보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 안에서 풀어지지 않던 답답함이 풀어질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진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분야로 나아갈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수업은 수업으로만 바라보고 내 진로와 가깝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수업 하나 하나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수업을 들을 때의 마음가짐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업을 들었지만 속이 시원하게 끝난 수업은 없었다. 항상 내 부족함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수업이 끝나고, ‘최선을 다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만큼 속 시원하고 내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교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교수님께도 다시 한 번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을 듣게 될 학우 분들이 이 수업의 가치를 꼭 파악하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나처럼 수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1월 13일

제출자: _____윤**_____ (인 또는 서명)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